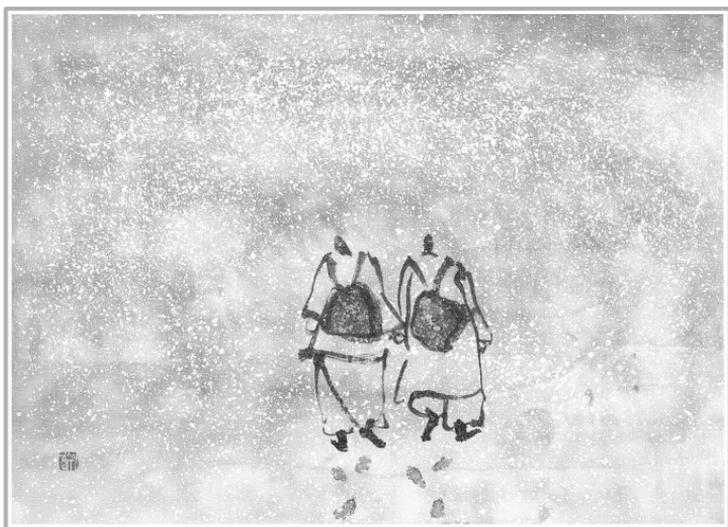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2011 / 6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세절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났다면,
 어떤 어려움도 시켜내리니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그와 같은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불교의 초기 경전<숫타니파타>의 구절

모든 사람들이 좋은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동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붓을 들었던 시간들 속에서...

표지 그림 및 설명 / 이연 이유경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 | | |
|---------------------------|------------------------------|-------------------------------|
|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1 / 6

법정스님 편지/법정	4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이달의 법문/현장	7	가장 위험했던 순간
시심청심/최명숙	10	꽃마중 가듯 가시는 법정스님 전에
사색의 뜰/아느 교도소에서	12	못나고 불쌍한 죄인을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맑고 향기롭게' 님!
함께하는 세상/차원석	14	법정스님의 영원한 울림
서울모임 회원 만남의 날	17	맑고 향기로운 니들이길 함께 가요
문예작품 공모	18	제14회 맑고 향기롭게 전국 학생 문예작품 공모전
산골만화/정태경	20	고양이
나누는 기쁨/각 봉사모임	21	5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28	서울모임
	31	부산, 대구, 경남, 광주모임
여기는 길상사	34	6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1년 6월 1일 발행 / 통권 196호 / 등록번호 라06706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석현장 / 편집인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진 / 인쇄처 능인전산품 / 부산모임 : (051)896-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17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053)753-8683 /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김수환 추기경 추모 글)

法頂 (스님)

겨울을 나기 위해 잠시 남쪽 섬에 머물다가 강원도 오두막이 그리워 다시 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며칠 세상과 단절되어 지내다가, 어제서야 슬픈 소식을 듣고 갑자기 가슴이 딱딱하고 망연자실해졌다.

추기경님이 작년 여름부터 병상에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 또한 병중이라 찾아뵙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기도를 올리며 인편으로 안부를 주고받았었다. 그런데 이토록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다니!

십여 년 전 성북동 길상사가 개원하던 날, 그분은 흔쾌히 나의 초청을 받아들여 힘든 걸음을 하시고, 또 법당 안에서 축사까지 해주셨다.

그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도 농담과 유머로써 종교 간의 벽, 개인 간의 거리를 금방 허물어뜨렸다. 그 인간애와 감사함이 늘 내 마음속에 일렁이고 있다. 그리고 또 어느 해인가는 부처님오신 날이 되었는데, 소식도 없이 갑자기 절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다. 나와 나란히 앉아 연등 아래서 함께 음악회를 즐기기도 했었다. 인간의 추구는 영적인 온전함에 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참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깨어지고 부서진 영혼을 다시 온전한 하나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 전 인류 공동체로 확대된다. 우리가 만든 벽은 우리를 가둔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자신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그 벽을 허무는 데 일생을 바치신 분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분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를 삶 속에 그대로 옮기신 분이다. 나와 만난 자리에서 그분은 “다시 태어나면 추기경 같은 직책은 맡고 싶지 않다. 그냥 평신도로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下心)’,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실천자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느님을 말하는 이가 있고, 하느님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다. 하느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 존재로써 지금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영혼으로 감지하게 하는 이가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이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다.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한 이 나라, 이 아름다운 터전에 아직도 개인 간, 종파 간, 정당 간에 미움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폭력과 살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진다. 이러한 성인이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났는데도 아직 하느님의 나라는 먼 것인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단순함에 이른 그분이 생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준 가르침도 그것이다. 더 단순해지고, 더 온전해지라. 사랑은 단순한 것이다. 단순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분이 더없이 존경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이다.

“사람은 결코 나면서부터 단순한 것은 아니다. 자기라는 미로 속에서 긴 여로를 지나온 후에야 비로소 단순한 빛 속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고 하느님은 단순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느님께 가까워지면 질수록 신앙과 희망과 사랑에 있어서 더욱더 단순하게 되어간다. 그래서 완전히 단순하게 될 때 사람은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김수환 추기경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살아 계실 것이다. 위대한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의 평안을 빌기 전에, 그분이 이 무상한 육신을 벗은 후에도 우리의 영적 평안을 기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봄이 오는 이 대지의 숨결을 빌어 우리에게 귓속말로 말하고 있다.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우리 안의 벽
우리 밖의 벽
그 벽을 그토록
허물고 싶어 하던 당신
다시 태어난다면
추기경이 아니
평신도가 되고 싶다면 당신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엔 아직도

싸움과 폭력,
미움이 가득 차 있건만
봄이 오는 이 대지에
속삭이는 당신의 귓속말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법정스님과 나누었던 가슴 따뜻한 옛 편지를 소장하고 계신 분께서는 편지 내용을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소중히 담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 편집자 주



가장 위험했던 순간

- 티베트의 지혜 -

玄藏 (스님)

언젠가 한 신도님과 이야기 중에 “세상에 두 가지 쓸모없는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고 제게 물었어요. 제가 무엇이 쓸모없는 것이냐고 여쭙어 보니 “돈 없는 남자와 늙은 여자는 쓸모가 없다”고 유머를 해서 같이 웃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쓸모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자들은 아름다워지려고 하며 늙지 않으려 하고, 남자들은 돈 벌어서 성공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저는 우리와 다른 티베트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 출세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티베트의 정신문화와 티베트 스승들의 가르침을 접하고 배우면서 우리들이 살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고, 사회의 문제들을 풀고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지혜와 공덕을 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원사에 티베트 박물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의 기준은 얼마나 이웃을 위해, 동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는가에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님도 정치지도자이지만, 동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세란 우리가 세상에 나온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지요. 티베트 사람들은 얼마나 자만심을 없애고 아집과 에고에서 벗어나느냐를 출세의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물질적인 재산을 많이 모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티베트에서는 죽을 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재산이라고 합니다. 죽을 적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참된 재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으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착한 일, 남을 돕는 일, 지혜를 닦는 일을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도 자기 삶을 복되게 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티베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질이 풍요한 나라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는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국민의 10% 정도가 예비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잘사는 나라일수록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 환자가 많아지고, 사회범죄가 갈수록 많아지며, 자살자도 많아집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물질적으로 잘사는 나라에서 높아져 가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서양의 정신과 의사들이 티베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놀라워하는 것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과 함께 잘살다가 그 재산을 잃고 가족과 흩어져서 혼자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파탄을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 중국의 침략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살육을 당하고 난민 생활을 살고 있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난생활을 하면서 극도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서양사람들이 티베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자기 민족을 괴롭힌 중국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티베트는 특이하게도 욕이 없어요. 굳이 들추어내자면 인과를 모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이 큰 욕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지혜롭고 자비로워지라는 뜻이 있어요. 티베트 독립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애쓰는 사람 중에 '리처드 기어'라는 영화배우가 있는데 티베트의 노스님

을 만나고 나서 중국인에게 품었던 적개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 스님은 티베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20년간을 고문당하고 몸이 망가져서 티베트를 탈출, 망명해서 달라이라마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 중에 ‘내 삶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중국인에 대해서 자비심을 잠깐 잃어버렸던 순간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 그 노스님은 오랫동안 갇혀서 고문을 당했는데도 자비심을 잃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이지요. 달라이라마가 ‘우리의 자비는 원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리차드 기어가 듣고 스스로의 적개심이 자비심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티베트 속담에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을 보고 화내는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보다 더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소식

세 그루 나무(木)가 모여 숲(森)을 이루듯 세 종교의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 세상과 소통하고 이웃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종교인 모임이 삼목회(三木會)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삼목회는 지난 4월 28일 길상사 세계일화(世界一華)실에서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하나 되는 유쾌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기독교의 최일도 목사, 김경호 목사, 원불교의 권도갑 교무, 김법전 교무, 불교에서 마가스님과 현장스님 등 30여명의 종교인들이 함께하였다. 다음 6월 모임은 서울 가회동의 원불교 은덕원에서 열린다.



꽃마중 가듯 가시는 법정스님 전에

최명숙 (시인)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인 '보리수 아래' 회장 최명숙님은 장애는 육체의 불편함일 뿐 불법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지로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하여 작품집 발간, 노래 공연, 음반 제작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삼월에 찾아오면 매화 꽃길을 따라
남녘의 어디쯤 꽃마중을 가곤 하시더니
꽃들의 환한 배움을 받으며 여여하게 가시는 님
엿그제 그리도 내리던 봄눈은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시별의 범문이었나 봅니다.

가는 길도 오는 길도 없는 길, 가시는 그 길이
시별 생애 잠시 인연 맺은 흙과 물, 불과 바람의 요소들을 털고
가는 길이라 해도
우주 법계, 우리 사는 세상의 마음마다
환히 박힐 초불 울리며
당신 앞에 가만히 두 손 모읍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직접 당신을 뵈온 날이 아련합니다.
하지만 사바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나룻배가 되어

원고 투고 바랍니다.

살면서 문득문득 느껴지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삶의 지혜가 되는 글, 책을 읽으며 발견한 가슴 뭉클한 글귀, 깨달음을 준 문구나 본인의
생각들 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 살면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 각 자원봉사활동
을 함께했던 분들의 속마음을 몸과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주세요.
자연의 소중함이나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위한 노력과 실천
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도 나누어 주십시오.

● 원고 보내주실 곳 : clean94@hanmail.net 또는 사무국으로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소식지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밝고 투명한 불성의 빛 속에 의지가

되어주신 날들을 기억합니다.

무소유의 글귀라다

비움의 삶을 배우지 않은 시가 어디 있으며

자신과 불법佛法에 의지해 시앗을 뿌리고 꽃을 피워야한다는 말씀에

시 봄날 우리는 어떤 꽃과 잎을 피워야 하는지 말을

잊지 못할 뿐입니다.

스님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있고

절이 있어 수행이 있는게 아니라 수행이 있어 절이 있다고 하셨으니

중생이 있어 그 수 없는 중생의 곁으로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꿈결인 듯 뵙습니다.

눈부신 봄날 다시 만나 반갑다고

또 다시 언젠가는 시 자리를 비울 만남이니

그래서 더 고맙고 다행스럽다고 하시겠지요.

매화꽃이 만개한 날 당신이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며

매화꽃 한 잎 한 잎 피어나 가시는 길을 밝힙니다. 



못나고 불쌍한 죄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맑고 향기롭게' 님!

어느 교도소에서

지 금 여기에서
제가 겪고 있는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따뜻한 가슴과 사랑의 마음이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식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못나고 불쌍한 죄인이 걷고 있는 고행의 길은 어느덧 인내를 주었고, 그 인내는 옹고 그릇됨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 그로 인한 죄인의 마음속엔 어느 틈에 희망이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만나 뵙거나 볼 수도 없고 얘기해볼 수도 없지만, 맑고 향기롭게 의 온정과 넘쳐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 또한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번을 계기로 느끼고 깨달음도 많았는데 이 못나고 불쌍한 죄인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뜨거운 눈

물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옛그제만 같아도 조석으로는 일교차가 무척 심하여 어깨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지곤 하였는데, 이젠 제법 날씨도 따뜻하고 심육척의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산과 들녘에는 푸릇푸릇한 연초록색의 나무들이 씩씩하게 가지개를 켜고 있는 듯한 게 실록의 계절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저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 보내주신 도서들을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고맙게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신경을 쓰고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제 자신만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투정을 부린 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기만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하는 마음과 함께 “여유를 가졌어야 옳은 것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속 좁고 여유 없는 죄인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용서를 빌 뿐입니다. 보내주신 도서들은 너무도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저 혼자만 보기에는 너무 너무 아깝고 훌륭한 도서라는 생각에, 제가 두 번 정도를 읽은 후에 제 주위의 동료들에게도 읽을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도 없이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 도서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깨달음 또한 크게 있는 듯 하였습니다.

문득 어렸을 때 어머님과 아버님의 손을 잡고 사찰 등을 다녔던 기억들과 늘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던 부처님을 떠올리게도 되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느낌이고 깨

달음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 못하고 가엾은 죄인을 위해서도 빌어 주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을 계기로 비록 하찮은 몸과 마음이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도 많은 포교를 해볼까 하는데 잘 될지는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도 이 못하고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는 불교에 대한 용어도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우고 불심을 심어보고자 합니다.

어쩌다 보니 두서없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이해와 용서를 바랍니다. 부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회원님들의 건강을 빕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지난 3월 말경 사무국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꼭 읽어보고 싶다는 내용과 교도소에서 읽을 만한 책 몇 권을 보내주면 고맙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훌쩍 지나쳐버렸는데 5월초 어느 날 또 한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니다. 책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허무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 버린 것이 너무 미안하여, 몇 권의 책과 쪽지를 보내드렸더니 맑게 향기롭게 회원님에게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법정스님의 영원한 울림

차 원 석

차원석님은 문화마케팅연구소 스토리텔링팀 PD와 국가브랜드위원회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모임 취재 후 보내주신 글입니다.

법정스님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언 일 년이 지났습니다. 생전에 평생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스님은 입적 직전까지 자신의 책 판매를 중지 시켜달라는 유언으로 마지막까지 무소유를 실천하신 분이지요.

그랬던 법정스님이 생전에 단 한 가지 심혈을 기울인 분야가 있었는데 바로 ‘맑고 향기롭게’라는 시

민 단체입니다. 법정스님은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법정스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 오늘도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집을 나섭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종교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지요. 봉사를 하는데 꼭 소속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체계가 있다면 더 꾸준히 봉사를 할 수 있겠지요? ‘맑고 향기롭게’는 1994년 창립된 모임입니다. 법정스님은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맑고 향



<알뜰 나눔 장터>

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시민단체인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스님의 “인간은 끊임없이 선행을 배풀어야 하고 더욱 지혜로워야한다”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시작했으니 어느덧 18년째 이어져오는 이 모임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모임이 생겨 서울 모임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대전 등에서도 모임이 활발합니다. ‘맑고 향기롭게’의 홈페이지에는 매달 자원봉사자들의 일정과 모든 외부 활동의 활동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 정말 투명정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요. 일반 시민의 모임인 만큼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봉사에 임하느냐가 관권인데 아마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여방법도 간단합니다. 기다릴 것도 없이 평소에 봉사하고 싶었던 분이나 개인의 시간을 맞춰서 등록을 하면 되지요. 사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다 비슷하지요? 결식아동 돕기와 독거노인 봉사, 요양시

설 방문 등 우리가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한발 더 다가가는 정서적 지원 - 전화말벗

한편 법정스님은 이 단체를 발족하면서 아홉 가지를 실천 덕목으로 삼았는데요. 그중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면서 살며, 항상 남을 칭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봉사하기 때문에 뭔가 더 뿌듯하지 않을까요? 특히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는 조금 독특한 모임인 ‘전화말벗’이라는 모



<연말 김장 나누기>

임이 있는데요. 원래의 모임이던 반찬지원모임을 통해 결연을 맺고 있는 결식이웃들에게 담당 봉사자 평균 8명 정도가 매주 1회 이상 전화하여 건강, 애로점을 파악하면서, 말벗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찌면 이 모임이 매우 중요한 모임일 것 같은데요. 외로운 독거 노인들은 일시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이런 조그만 관심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 모임에 수년째 봉사하고 있다는 한 봉사자는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볼 때 노인 20명 중 1명은 홀로 산다면서 그냥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말한 마디 한 마디를 귀담아 듣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노인과 대화할 때 몇 가

지 지켜야 할 수칙이 있고 노인과 대화하는 요령이 있는 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봉사 모임이기도 합니다.

독거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 일상적인 안부는 물론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정스님은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살아 계실 적 평소 바람처럼 이 세상 모든 곳이 맑고 향기가 가득하길 바라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거노인을 위해 힘을 자원봉사자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 모두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



<전화말벗 어르신 가가호호 방문>



<전화 말벗 봉사 회원들>



‘북촌 한옥마을 ~ 삼청공원 ~ 북악산 성곽길 ~ 동소문’ 맑고 향기로운 나들이길 함께 가요!

6 월 셋째 토요일. 회원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서울은 수려한 산들이 사방을 둘러싼, 멋진 경관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커다란 도시입니다. 덕분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지요.

도심의 지친 일상을 벗어나 오랜 세월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한옥 마을과 서울 성곽을 따라 걸어보는 숲길은 물 한 병 그리고 가벼운 운동화 차림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 땅의 기운 그리고 꽃과 나무!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과 함께 주말 나들이 다녀오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나들이는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출발하여 정독 도서관 - 북촌 한옥마을 - 삼청공원 - 말바위 쉼터 - 외룡공원 - 혜화문(동소문)을 끝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삼청공원과 성곽길을 따라 박희준 선생님의 숲해설도 이어지며, 집에서 정성껏 싸온 도시락도 나눠 먹으며, 회원들끼리 잠깐 잠깐 대화의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미리 전화 접수 바라며 도시락과 식수는 개인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41-4696, 7) 🌿

- 일자 : 2011년 6월 18일(토)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3시
- 만나는 장소 : 헌법재판소 10시 집결(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00m 거리)
- 준비물 : 도시락, 식수, 등산화(운동화), 모자, 간식
- 숲에서 즐기는 물물교환 : 회원들과 서로 교환할 만한 작은 소품 한두 가지 챙겨 오시면 게임을 통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제14회 맑고 향기롭게 전국 학생 문예작품 공모전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우리말과 글의 사용을 장려하고,
소중함을 제고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미래의 작가를 발굴하여 그 역량을 고무하고자
전국 학생 문예작품 공모전을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에서 개최합니다.

기간 : 2011. 6. 1 ~ 8. 31 / 대상 : 전국 고등학생

【부 문】

- 운문 : 시 / 시조 - 1인 3편 이상
- 산문 : 소설 / 동화 - 1인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70매 이상)
- 수필 : 1인 2편 이상 (200자 원고지 10매 이상)

【요 령】

- 1인 1부문 응모 가능
- 제출 시 응모원서(www.clean94.or.kr/busan)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전자메일, 우편으로 응모

【기간 및 접수】

- 기간 : 2011년 6월 1일 ~ 8월 31일
(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 : 접수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고 주최 측에 귀속됨
우편 - (614-030)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12-3 정산빌딩 9층
전자우편 - pusanmh@hanmail.net

【심 사】

- 해당 부문 당선작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음
- 타 문예공모전 수상작 공모 및 타인의 작품을 모방 또는 복사하여 응모할 경우 수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속학교에 알림

【발 표】

- 2011년 9월 중순에 당선자 개별 통보
-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표

【시 상】

- 각 부문 : 운문 부문(시·시조) / 산문 부문(소설·동화, 수필)
최우수상 : 1명, 상금 500,000원
우수상 : 1명, 상금 300,000원
장려상 : 1명, 상금 100,000원

【문 의】

- 홈페이지 : <http://www.clean94.or.kr/busan>
- 전자우편 : pusanmh@hanmail.net
- 전화 : (051)898-2672, 2673



고양이

정태경



덧이란 것을 처음 만져봤다.
한참만에야 겨우 풀었다.



엉뚱하게 걸린 운 나쁜 녀석.
그나마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다.



작물피해로 설치했나 보다.
그래도 어느 것이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치한 분께는 미안하지만...





맑고 향기롭게 녹색장터

<<2011년 녹색나눔장터 안내>>

■일시: 5,6,7,8,9월 넷째주 일요일/10월 미정
■장소: 길상사 경내 외

5월 29일 - 맑고 향기롭게 녹색장터 개막
6월 26일 - 환경의 달 장터
7월 24일 - 바깥스 준비 알뜰 나눔장터 1
8월 29일 - 여름 장터 2
9월 25일 - 가을 맞이 장터
10월 - 종교 연합 바자회

생활 속에서 재사용과 자원순환의 녹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작은 장터입니다. 직접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경제교육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 참가 및 물품 접수는 장터 15일 전부터 받습니다.
- 참가 접수는 사무국으로 전화로 신청

자 이름, 연락처, 참가인원수를 알려주세요. (참가자 제한은 없습니다.)

- 물품은 사무실로 직접 또는 택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원활동 해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 ※ 참가비는 없으며, 수익금의 20% 이상 기부해주시면 됩니다.
- ※ 문의 : 741-4696, 7 (담당: 김소영 간사)

묘회원(1일, 매월 첫째 일요일)

(활동 이야기: 한인섭 모듬장)

황사가 심할 거란 일기예보 때문인지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적었다. 서울을 벗어나 묘회원으로 갈수록 황사는 심해졌다. 이번 달부터 8시에 모여 출발해서 묘회원에 일찍 도착했다. 오늘 작업은 보도블록 깔기와 우수(雨水)관 묻기 작업이었다.

남자 회원들은 우수관 묻기 작업, 여자 회원들은 보도블록 깔기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우수관 묻기 작업을 하기 위해선 곡괭이 등으로 수로를 판 뒤, pvc관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야 한다. 곡괭이로 단단히 굳은 땅을 파니 힘이 들고 땀이 났다. 마침 묘회원 정형 처사님이 포크레인을 잠시 빌려 와서 땅을 마저 파고 pvc관을 산소가스로 바르게 편 뒤 묻었다. 그런데 흙이 모자라서 오후에 흙을 퍼와 덮기로 하고 내려왔다. 그 사이 여자 회원들이 블록을 깔기 좋게 땅 고르기 작업을 해놓았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모임을 한 뒤, pvc관 덮기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여자 회원들이 작업하고 있는 보도블록 깔기 작업을 도왔다. 바깥일을 오래 하다 보

니, 처음 하는 보도블록 깔기 작업도 이제는 전문가를 능가하는 수준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 일부 회원들이 먼저 귀가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유명하다는 삼각지 옛 국수집에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함께 해준 봉사자 모두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서울시립수락양로원

(1, 2, 3, 5주 목요일)

(활동 이야기: 홍성주 모듬장)

• 5월 12일: 지난주는 어린이가 날이라서 노래치료활동이 없었다. 3주 만에 만나는 어르신들은 언제나처럼 반갑게 맞아주셨고,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고 서운해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한동안 입 꼭 다물고 노래를 안 부르시던 길00할아버지께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지 어깨춤도 추시고, 애창곡 18번이신 ‘삼다도라 제주에는~’을 열창하시더니 마이크를 다시 뺏다시피 하시며 한 곡을 더 부르셨다. 얼굴엔 웃음 함박~ 어르신들을 보면 감정기복의 곡선이 있는 것 같다. 길00어르신~~ 상승곡선 계속 유지하시고 즐겁게 노래 부르시

며 지내세요.

● 5월 19일 : 음악치료 수업은 양로원 식당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처럼 어르신들도 나름의 지정 좌석이 정해져 있다. 습관처럼 내 자리를 찾아 앉으시는 거다. 항상 저 멀리 똑 떨어진 맨 뒷자리에 앉으시는 최OO 할머니. 양로원 식구들 중 최연소 어르신 아닐까 싶다. 목소리도 까랑까랑 하시고 힘도 넘치신다. 언젠가 북치는 걸 도와주셨는데 어찌나 크게 치시던지 북소리 때문에 노래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다. 노래 부르실 때도 식당이 울릴 정도로 크게 부르셨는데, 점점 노래 소리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했다. 예전엔 크기만 하고 듣기엔 거북했는데 이제 고운 목소리로 변하신거다. 할머니 선생님의 칭찬에 다 선생님 덕분이라는 말씀을 하신다. 오늘도 고운 목소리로 ‘아 동들의 피리소리~’를 멋지게 부르셨다. 할머니 소녀 적 꿈이 성악가가 아니셨을까?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 오은주 : 홍OO어르신께서 통화가 안

돼서, 하루에 몇 차례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이웃어르신께 여쭙보곤 했다. 그러다 다행히 통화가 돼서 무슨 일 있으셨냐고 물어보니 위암초기라 입원하면서 수술을 하셨다고 한다. 다행히 초기라서 레이저치료를 했다고 하지만 식사를 못하고 죽만 먹는다고 해서 걱정이다. 죽 다 드시고, 건강이 괜찮아지면 식사를 같이 하자고 약속했다. 빠른 시간 내 완쾌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한OO어르신께서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화를 못 드렸는데, 나의 전화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참다가 참다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른 어르신 대부분 봄의 기운으로 잘 보내고 계셔서 다행이다.

● 엄경숙 : 거의 8개월 동안 찾집을 운영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어르신들께 자주 전화를 하지 못해 미안했었다. 때론 어르신들에게 걸려온 전화만 받기도 바쁠 정도로, 몸이 힘든 줄도 모르고 가게일을 해왔는데, 말벗 어르신들께서 직접 가게로 찾아와 주기도 하셨다. 그 고마움을 앞으로 자주 전화를 드려 안부도 전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하나를 주고 열 개를 받은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첫마음으로 돌아가 전화말뭇을 해야겠다.

• 서은영 : 예전 너무 전화를 안 받아 한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던 박00어르신께서 이제는 나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매주 화요일 전화를 하는데, 부처님 오신날에는 이리저리 바빠서 전화를 못했더니 왜 전화를 안했냐며 기다렸다고 앞으로 꼭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도 하신다. 어르신께서 요즘 보내주는 김치가 맛있다고 하신다. 민00어르신은 손녀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면서 하소연을 하신다.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면 듣지도 않고, 먹을 게 있으면 남겨놓지도 않고 다 먹어 버리고, 새벽까지 인터넷을 하는 바람에 잠을 설친다고 하신다. 그래서 아빠에게 얘기하라고 해도, 또 걱정이 되는지 하지는 않는다고 같은 하소연을 매번 하고 계신다. 3년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도 들어주는 방법 밖엔 없는 것 같다.

• 임진성 : 한00어르신이 11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방울이(개 이름)가 교통사

고가 나서 화장을 했는데, 너무 슬프고 정 때문에 뿌리지 못하고 화장 단지를 보관중이라고 한다.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정이 있었을까? 그로인해 생활패턴도 바뀐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 제주도에 사는 김00어르신은 맑고 사무국에서 전기포트를 보내드렸는데, 물을 데워 따뜻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고맙다는 말을 몇 차례나 하셨다. 어르신들께서 보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일)

(활동 이야기 : 권미자 모듬장)

• 5월 9일 :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전이라 그런지 맑고 봉사팀이나 다른 팀 봉사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으셨다. 다행히 맑고 사무실에서 홍팀장님과 새로 오신 신입 이예진 간사 그리고 맑고 봉사자로 등록은 안하셨지만,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봉사자님이 오셔서 오늘도 급식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로 더 바쁘신 중에도 노인센터 봉사에 함께 해주신 봉사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5월 16일 : 오늘은 기업체에서 단체

봉사를 나오셔서 봉사자가 많아서 힘겹지 않게 진해되었습니다. 아쉽게 생각되는 점이지만 봉사자가 부족할 때는 너무 부족하고, 많을 때는 너무 많아서 봉사 나오셨던 분들 중에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봉사자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더 열심히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서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사무국에서 이예진 간사님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 5월 23일 : 노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하다 보면 유난히 노여움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밥이 조금 탔거나, 반찬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미쳐 식탁정리가 안 되서 식탁에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거나 하면 봉사자에게 화를 내시곤 합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봉사자들은 어르신이 화를 내시는 이유를 빨리 알아내서 기분을 맞춰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급식 중에 한 어르신께서 제게 마구 화를 내시며 식사도 덜하신 식판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영문을 몰라 뭐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서있는데 옆에서 식사하시던 다른 어르신께서 “저분이 입맛이 없어서 밥을 다 못 먹겠어서 그런가봐 괜히 봉사자한테 왜 화를 내는지 참 그냥 이해하시구려. 미안해요”라고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 어르신들께 혼이 날 때면(?) 무안하고 창피해져서 언짢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은 한 어르신의 말씀에 무안했던 마음도 풀어지고 표현에 서투르신 어르신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수요팀)

(활동 이야기 : 변윤정 모듬장)

• 5월 4일 : 가정의 달 5월 첫째 수요일 노인복지 센터 봉사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복지센터를 찾아주신 어르신들께 정성껏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더욱더 기쁜 하루였습니다. 맑고 팀은 다른 일들을 나누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잔반처리를 하면서 아쉬운 것은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입맛에 다 맞는 음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잔

반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세상 배고픔에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승가원(2, 3주 일요일)

(활동 이야기 : 흥정근 봉사팀장)

• 5월 8일 : 부처님 오신날을 이틀 앞둔 일요일. 승가원 아이들과 함께 백팔염주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아이들의 108 염주 만들기 도전기! 어떻게 되었을까요? 108 염주 만들기에 앞서 간단하게 불교와 부처님 오신날에 대한 유래에 대해 짧게 교육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어찌면 생소한 불교와 부처님 오신날에 대한 교육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재료를 배분하고 108 염주 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동과 학생들이 1:1로 짝을 지어 염주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다들 사뭇 진지해 보이는 얼굴로 장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염주 알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언제 다하지?' 하는 마음이었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협력하여 염주 알을 꿰자 어느새 108 염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108 염주 만들기도전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청소년 봉사자들과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니까 성공이라고 말해도 무관할듯합니다.

• 5월 15일 : 화창한 5월. 승가원에서는 요가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요가 선생님과 청소년 봉사자들이 자리를 정돈하여 앉아 본격적으로 요가활동을 시작하면 손을 '반짝반짝' 하며 팔의 근육을 풀기도 하고 서로를 의지해서 어려운 동작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가 활동이 끝난 후 누워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아침부터 많이 움직여서 피곤한지 잠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일찍 나와 아이들과 함께 요가를 해주신 10명의 청소년 봉사자와 요가 선생님! 수고하였습니다.

결식이웃 밑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활동 이야기 : 최두리 모듬장)

• 4, 6일 - 목요일이 어린이날이라 4일 수요일과 6일 금요일에 자원 활동이

있었습니다. 통마늘 장아찌와 비름나물 무침, 바나나를 준비하여 이웃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 12월 - 김치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봉사자가 적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아마 봉사자가 적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라도 가야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것 같습니다.

KTX나눔회에서도 한결같이 동참해주셨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의 저력을 느끼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19, 20일 - 새우 마늘중 볶음, 깻잎 김치, 그리고 후원해주신 단팥빵을 정성껏 준비하여 나눠드렸습니다.

• 5월 26, 27일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진 5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감자와 어묵, 파리고추가 들어간 조림과 청경채를 데쳐 된장무침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 타인지 봉사자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꽤 덥다는 소식이 있는데, 덥다고 설마 빠지진 않으시겠죠? 이제 곧 여름입니다.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결식이웃 밑반찬 조리 봉사팀에서 차량 배달 봉사자와 남자 봉사자를 애타게 찾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홀로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 2가지 반찬을 지원하고, 매월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조리장에서 남자 봉사자(개인, 대학생, 단체 5인 이하 정도)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라 힘이 부족해서 무거운 것을 옮길 때 마다 여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목요일, 금요일 직장을 안 나가는 프리랜서 또는 최근에 잠시 집에서 쉬는 남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길상사 주차장 옆 맑고 향기로운 조리장으로 달려와 주시면 반갑게 맞이해드리겠습니다.

- 밑반찬 조리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 반 ~

- 밑반찬 배달 자원 활동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강서구 가양2, 3동)



서울모임

홈페이지 회원 가입 인증메일, 정보변경 문의는

각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본모임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오류로 회원님께서 홈페이지에서 회원 정보변경을 하지 마시고, 각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모임 홈페이지는 제작할 때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고자, 메일계정 인증시스템을 사용하여 본인이 메일을 확인하였을 경우 인증이 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증메일이 오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포털 사이트마다 스팸메일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하다보니 본모임 발송하는 인증메일이 스팸메일로 등록되거나,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원 가입 후 인증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각 지부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본인 확인 후 빠른

시일 내 인증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차후 홈페이지를 새단장할 때 시스템을 보완, 강화하여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수도권) 숲기행 일정 안내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숲기행은 자연의 소중함을 내 온몸으로,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7회에 걸쳐 숲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올해는 수도권 숲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첫째 토요일 진행(7월은 둘째 토요일)되며, 6월 숲기행 코스는 서울 공해 바다위에 외로이 떠있는 남산입니다. 만나는 장소는 동대입구 6번 출구 앞, 오전 10시입니다.

승가원 아동들과 서울랜드 나들이 갑니다.

승가원 아동들과 맑고 향기로운 청소년 봉사자들이 짝꿍을 맺어 서울랜드로 나들이 갑니다.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40장과 20만원을 지난 4월에 조OO 회원께서 후

원을 해주셨습니다.

10장은 승가원측에서 요가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들이 먼저 다녀왔고, 30장의 자유이용권으로 6월 5일(일)에 다녀올 것입니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에서 점심을 준비해주기로 하였고, 본모임에서는 승가원 후원 예산으로 버스대절, 동물원 관람, 여행자보험가입을 지원합니다.

● 참여인원: 승가원 아동 13인, 청소년 봉사자 13인, 승가원 생활 복지사 2인, 서울 사무국 2인

‘의류재활용 봉사팀’ 활동 이야기

2011년부터 의류재활용 소품 만들기 소모임이 리폼에 자원 활동해 주신 회원 분들을 중심으로 <의류재활용 봉사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봉사팀은 여러분께서 기증하여 주신 헌옷이나 자투리 천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필요한 시설에 기증도 할 예정입니다. 양단, 공단으로는 상보나 크고 작은 소품 주머니도 만들어 생활 속에서 활용해보려 합니다.

5월에는 카드지갑과 통장지갑을 만들었습니다.

상처가 나서 버리려 했던 옷가지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재탄성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분들이 탄성을 지르곤 했습니다. 녹색나눔장터에도 의류재활용 봉사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의류 재활용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소식지 발송 봉사자 모집

소식지 발송 작업은 매달 초(3~5일) 사이에 이뤄지며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전후로 극락전 뒤편 ‘세계일화실’에서 행해집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시간적으로나 힘에 겨워 참여할 수 없었던 분이라면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6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발송 / 6월 7일(월)
- 회원만남의 날 / 6월 18일(셋째 토요일)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 활동

- / 매주 목 - 6월 2, 9, 16, 23, 30일 / 금 - 6월 3, 17, 24일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갈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 / 첫째 일요일(6월 5일)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6월 12일) 오전 8시 20분 /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 활동 / 1, 2, 3, 5주 목요일(6월 2, 9, 16, 30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 집결 / 일반 자원활동가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6월 6, 13, 20, 27일),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6월 1, 15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셋째 일요일(6월 12, 19일) / 오전

- 9시 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정기모임 / 둘째 월요일(6월 13일), 오후 1시 30분 / 서울모임 사무실
- 벽제국군병원(고양시 덕양구) 내 법당 점심 조리봉사 / 둘째, 셋째 일요일(6월 12, 19일)
- 외부봉사 모듬장 회의 / 6월 22일(넷째 수요일), 오후 7시 / 서울모임 사무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매주 수요일(6월 1, 8, 15, 22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 / 극락전 뒤 세계일화 소모임방, 비누는 맑고 조리장 / 선착순 7~8명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소품 만들기는 2011년부터 매주 의류재활용 리폼에 자원 활동해 주신 회원 분들을 중심으로 <의류재활용 봉사팀>으로 운영됩니다.
- 숲기행 / 5월~11월 첫째 토요일 : 6월 4일 - 남산(매월 대기자 접수 중)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부산모임(051-898-2672~3)

6월 부산모임 정기 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매주 수요일 / 10:00~12:00
- 장애우 이동목욕
매주 수요일 /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매주 목요일 / 10:00~13:00
- 부산시 노인전문 제1병원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1, 3주 목요일 /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 병동 목욕봉사
2, 4주 목요일 /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매주 목요일 /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 /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매주 금요일 /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매주 금요일 / 09:30~12:00
- 매달 첫 번째 금요일 - 참선모임
-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참사랑노인건강센터
-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달 네 번째 토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대구모임(053-753-8883)

6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
 - ▷ 매주 수요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 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 매주 월요일 - 개별녹음 / 정기모임 :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7시
- 룬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 방문 자원 활동

▷ 매월 셋째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경남모임(055-266-0170)

6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 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 활동(은비네 외 10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 / 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 구입문의 ☎(055)266-0170
- 운영위원회 - 6월 14일(화) 오전 6시 성주사



광주모임(062-236-3129)

6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법정스님 영상설법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월 1, 3주 금요일(6월 3일, 17일) 오후 2시 법정스님의 영상설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주신 법정스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 에서는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 20명이 요일별로 조리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쌀, 양념류, 생필품 등
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리시간: 오전 10~1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벌써 신록의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원 여러분 초파일 잘 보내셨지요?
절 입구마다 오색찬란한 연등을 보며
부처님 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토론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오색
찬란한 연등과 흡사합니다.

6월의 선정도서는 어른스님의 “일기일회”
입니다.

- ▶ 주제: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 ▶ 이달의 추천도서: 꾸삐씨의 “행복여행”
- ▶ 일시: 6월 8일(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사
무실



뜻을 같이 하는 분이면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
임의 사업은 회원들께서 후원해 주시
는 만큼 펼쳐집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100% 회원 후
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전적으로 회원 개개인이 자
신과의 약속으로 정기·부정기후원, 후
원금액, 후원방법(지로, 온라인, CMS
자동이체) 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후원계좌

[경남지부]

농협 932-01-002933

[광주지부]

농협 609-02-283017

[대전지부]

우체국 312850-01-000142

[대구지부]

▶ 일반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나눔후원 :

대구은행 002-10-000387

[부산지부]

우리은행 206-07-151128



여기는 길상사

<불교입문 여흥 학기 주야 개강안내>

- 개강 : 6월 8일 수요일 (3개월)
- 시간 : 주간반 수요일 낮 2시 ~ 4시
야간반 수요일 저녁 7시 반 ~ 9시
- 수강료 : 7만원 (교재비 포함)

* 인터넷 접수 : 길상사 홈페이지 - 배움터 - 강좌 - 불교입문 - 불교입문 신청하기 작성 후 수강료 입금

* 방문 접수 : 종무소 또는 교무실에 수강신청서 제출 후 현금납부 또는 아래 계좌로 입금

* 동참금 : 신한은행 140-003-875653
예금주 길상사

※ 문의 : 교무실 02-3672-0036,
종무실 02-3672-5945/6
(전화문의는 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입니다.)

<6월 주말 선 수련회 안내>

길상사 주말 선 수련회는 참가자들 수준에 맞춰 한 달에 두 번 신참반과 구참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불교를 갖 접하시거나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신참반에, 수련 경

험이 있거나 참선을 집중해서 하고 싶은 분들은 구참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길상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참반 : 6월 셋째 주말 (6.18~19)
- 구참반 : 6월 넷째 주말 (6.25~26)

<시민 선방 철야정진 안내>

길상사에서는 6월부터 매월 둘째 주에 철야정진을 실시합니다. 지도법사 스님의 지도로 진행되는 철야정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일시 : 매월 2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주말 수련회 도움 줄

자원봉사자 모집>

길상사에서는 주말 수련회를 도와 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자원봉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종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신도 교육>

매주 일요 법회 후에는 길상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세 신도 교육'이 열

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후 1시에 설법전 소강당에서 진행합니다.

<길상사 중고등부 법우 모집>

길상사 중고등부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에서 일요일 오전 11시에 부처님과 스님과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법우들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불교 공부도 하고 밴드활동으로 친목도 다지고 싶으신 청소년 여러분들은 중고등부로 찾아오세요.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 중고등부 법회(14~19세의 청소년)
일시: 매주 일요일 11시
장소: 길상사 도서관

<6월 길상사 정기법회 및 기도>

- 초하루 3일 기도 / 6월 2일(음 5.1)
극락전 10시
- 보름 미타재일 기도 / 6월 16일(음 5.15)
극락전 10시
- 지장재일 / 6월 19일(음 5.18) 지장전 10시
- 관음재일 / 6월 25일(음 6.24) 극락전 10시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다라니 기도 / 6월 5일(토) 오후 8시 반
- 삼천배 기도 / 6월 11일(토) 설법전 오후 8시 반
- 철야정진 / 6월 11일(토) 시민 선방 오후 9시
- 극락전 기도 /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지장전 기도 /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거사리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달 음력 초하루 / 6월 2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달 셋째 월요일 / 6월 20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달 둘째 월요일 / 6월 13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달 넷째 화요일 / 6월 28일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월요일 / 6월 6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어린이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소강당
- 중고등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도서관

법정 어른스님께서서는 맑음은 개인의 청정이요,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라며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시작하셨으며, ‘운동’이란 단어까지도 생색내는 일이라며 빼 버리셨다고 합니다. 몇해가 지나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시작한 이유를 묻는 이에게 ‘중이 밥값을 하기 위해서’라며 간단히 말씀하셨지요.

어떤 큰일을 계획하고 꾸며갈려고 막상 어떤 일이라도 벌일라치면, 스님께서서는 소란스럽고 떠들썩함은 오히려 인간의 존재가 가진 맑음과 향기를 사라지게 한다는 이유로 좀처럼 허락하지 않아 당시 실무자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을 벌이길 좋아하고, 거창한 행사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답답해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실로 이런저런 행사 기획안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 이름에 맞게, 규모도 크게, 사람도 많이, 장소도 넓어야 하고, 예산도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등의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활동가로서 대화중에 답답함을 느끼지만, 애써 표현을 하지 못하고 생각에 잠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스님께서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어떤 외적인 행사나 슬로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회원 스스로 작고 소중한 만남과 시간을 가지며,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 등 단순하고 간소한 노력으로 작지만 멀리 오래도록 퍼져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될 수 있는 한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써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 한 송이 꽃을 피우고, 맑고 향기로우려는 운동을 찾는데 애쓰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